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2025, Vol. 11, No. 1, 127-156

OPEN ACCESS

운전자의 거절민감성이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에 미치는 영향: 운전분노와 정서표현양가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송 유 정
동덕여자대학교
아동·심리학과
석사 졸업

이 주 영†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전공
부교수

본 연구는 운전자의 거절민감성과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 간의 관계에서 특성 운전분노와 상태 운전분노를 통한 정서표현양가성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20-60세 미만의 성인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전자의 거절민감성과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의 관계에서 특성 운전분노와 상태 운전분노의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서표현양가성이 특성 운전분노 및 상태 운전분노와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운전자의 거절민감성이 특성 운전분노 및 상태 운전분노를 매개로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정서표현양가성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 운전자,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 거절민감성, 운전분노, 정서표현양가성

---

* 본 연구는 2024년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며, 한국임상심리학회 2023년 가을 학술대회 포스터로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주영 /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전공 부교수 / (02748)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13길 60 동덕여자대학교 / E-mail: jylee7694@dongduk.ac.kr

Copyright ©2025,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도로 위에서 자동차가 타인을 향한 공격도구로 사용되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교통사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Galovski et al., 2006) 더욱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인해 약 26조 9,987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같은 해 국내 총생산(GDP)의 약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도로교통공단, 2023). 또한 교통사고는 다양한 심리적인 질병의 증가와 연관되는데(Craig et al., 2016), 특히 교통사고 생존자 중 20% 이상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였다(Lin et al., 2018). 이처럼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타인을 향한 신체적, 심리적, 재산적 피해를 초래하는 공격적인 행동이다. 난폭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 46조의2 벌칙조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보복운전은 형법상 살인죄, 상해죄, 일반교통방해, 교통방해치상, 협박죄, 특수재물손괴,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최수형 외, 2020).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분되지만 선행연구마다 그 정의가 다양하다. 또한 난폭운전이 보복운전의 원인이 되거나 상대 운전자에게 보복하기 위해 난폭운전을 하는 등 한 가지 상황에서 두 가지 운전 양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전 중 도발에 대한 공격적 행동 반응과 다른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모든 운전 행위를 공격적 운전으로 정의하고(Edward et al., 2013), 이를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자동차 소유가 보편화됨에 따라 도로 위에서의 경험이 개인의 일상적인 주요 생활 영역이 된 만큼 공격적인 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익명상황에서 덜 억제적이며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Silke, 2003). 여기서 익명성이란 타인이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Diener, 1976). 인간은 익명상황에서 외부의 평가, 비판, 처벌 등의 사회적 반응이 부재할 때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충동을 자제하지 않으며, 이는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Christopherson, 2007). 운전상황에서 공격적인 행동이 특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유 또한 익명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운전상황에서는 차량의 번호판을 제외하면 운전자를 식별하기 어렵고, 비상등을 켜거나 손을 흔드는 등의 제한된 방식으로만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운전상황은 익명성이라는 특수성이 부여된 환경이다(Björklund, 2008). 따라서 익명적인 운전상황에서 운전자는 자신의 행동과 행동의 결과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쉬우며(Lowenstein, 1997), 그로 인해 평소보다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Diener et al., 1976). 실제로 면대면 상황에 비해 익명상황에서 난폭운전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윤보영, 이순철, 2011), 교차로에서 신호가 바뀐 후에도 늦게 출발하는 앞차가 있을 때, 뒷차가 지붕이 열려 있는 컨버터블 차량일 때보다 지붕이 닫혀 있는 컨버터블 차량 및 일반 차량일 때 경적을 더 빈번하게 울리는 경향이 있었다(Eillson et al., 1995).

본 연구에서는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과 관련하여 거절민감성의 영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수용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Baumeister & Leary, 1995)이다. 따라서 사회적 관계에서의 좌절은 신체적 통증과 유사할 만큼의 심리적 고통을 유발한다(Eisenberger, et al., 2003; Kawamoto et al., 2012). 거절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이란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절당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기대를 가지며, 거절당하는 것에 불안과 분노를 경험하는 인지 및 정서적 과정을 의미한다(Downey & Feldman, 1996). 선행연구에서는 거절민감성이 높을 경우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이 어렵고(고은영, 김미경, 2020; 김혜경, 2021), 사회적인 좌절에 대해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대처하는 등(유예림, 강혜자, 2021), 거절민감성이 공격성의 취약성 중 하나임이 밝혀져왔다(Ayduk et al., 2008; Romero-Canyas et al., 2010).

거절민감성은 특히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성이 높다(유진아, 김종남, 2022; 최명화, 주영아, 2018; 탁언효 외, 2022). 이는 공격행동을 외현적으로 드러낼 경우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과 자신이 받게 될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절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익명성을 보호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공격성을 나타내기 쉽기 때문이다(최수영 2020; Loudin et al., 2003). 또한 거절민감성이 높을수록 중요한 대상으로부터 거절되는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나타났다(선미진, 서수균, 2021). 이는 관계적 중요성에 따라 거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거절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도로는 다른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으로, 운전자는 다른 도로 이용자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운전을 하게 되고(Ge et al., 2021), 이 과정에서 타인의 무시나 거절을 경험할 수 있다. 일례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시도했으나 이를 방해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상황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는 차체에 가려 상대 운전자와의 만남이 일회성으로 제한되어 있는 운전상황에서 타인의 무시나 거절은 공격적인 운전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인간이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때에는 이에 적합한 정서가 선행해야 한다(Buss & Perry, 1992). 다시 말해, 운전 중 다른 운전자로부터 거절이나 무시를 경험한다고 해서 항상 공격적인 운전행동이 유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행동을 매개하는 정서변인이 존재한다. 국내외에서는 운전자의 공격적 운전과 관련해서 운전분노에 주목해왔다(Deffenbacher et al., 2000; Neighbors et al., 2002). 운전분노(driving anger)는 운전 중 느끼는 분노와 관련된 감정 및 생각으로 공격적인 운전행동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Nesbit et al., 2007). 운전분노는 특성 운전분노와 상태 운전분노로 구분되는데, 특성 운전분노(trait driving anger)는 상황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운전 중에 빈번하고 강하게 느끼는 분노의 수준을 의미한다. 반면, 상태 운전분노(state driving anger)는 특정 운전상황에서 느끼는 분노의 강도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정서 상태를 나타낸다. 운전분노가 운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특성 운전분노와 상태 운전분노를 구분하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Hole, 2014).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운전자의 특성 운전분노와 공격적인 운전행동 간의 관련성을 밝혀왔으나(Dula & Ballard, 2003; King & Parker, 2008; Wells-Parker et al., 2002) 실제 운전상황에서 상대 운전자에 대한 공격

적인 운전행동의 표출은 운전자의 성향과 함께 상황적인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김요한, 이재식, 2014). 실제로 상태 운전분노 수준이 높은 운전자가 그렇지 않은 운전자에 비해서 공격적이고 위험하거나 위법적인 운전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높았다(Blanchard et al., 2000). 따라서 운전분노를 특성 운전분노와 상태 운전분노로 구분하여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의 발생기제가 운전분노의 세부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운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과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므로 주어진 운전상황에 적합한 정보처리와 판단, 의사결정이 요구된다(이재식, 2013). 그러나 부정 정서는 정서적 각성을 유발하여 운전상황에서 요구되는 정보처리 과정, 특히 주의와 지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남숙, 강혜자, 2009). 특히 부정 정서 중에서도 높은 각성을 유발하는 분노와 불안이 시각적 주의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가장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Jefferies et al., 2008). 또한 분노는 자신을 통제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것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킴으로써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에 대한 조절을 어렵게 한다(Denson et al., 2011). 이에 따라 운전 중 높은 수준의 분노를 경험하는 것이 익명상황에서 공격적 운전행동의 위험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인간의 정서 경험은 개인의 인지적 평가와 귀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Britt & Garrity, 2006). 사회적 행위에 대한 귀인이론에 따르면 타인의 행동을 의도적인 것으로 귀인할 경우 그 행동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게 되어 더 강한 분노를 느끼기 쉽다(Weiner, 2006). 즉, 운전상황에서 다른 운전자의 무례하거나 공격적인 운전행동에 의도성이 있는지에 대한 운전자의 판단이 분노 수준을 결정한다. 실제로 거절민감성이 높을지라도 타인의 거절을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따라 거절에 대한 대처방식이 달라졌다(London et al., 2007). 거절이 명백하게 지각되는 상황에서 개인은 불안을 느끼고 회피적이고 수동적인 방식으로 대처하는 반면(김은지 외, 2018, 이가연, 이정윤, 2022; 정은정, 정남운, 2019) 타인의 거절이 애매모호한 상황에서는 더 많은 분노를 느끼고 질투, 지지의 철수, 애정의 철회 같은 공격적이고 통제적인 방식으로 대처한다(이희경 외, 2014; Downey et al., 1998; Downey et al., 2000; Twenge et al., 2001). 또한 거절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타인에게 보복하려는 반응이 높았다(정소현, 양난미, 2018). 거절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대인관계에서 거절과 관련된 사소한 단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하수홍, 장문선, 2013; Berenson et al., 2009), 타인의 모호하고 중립적인 반응을 편향된 방식으로 해석하고 거절로 확신한다(이희경 외, 2014). 구체적으로 이들은 부정적 단어들 중에서 거절 관련 단어를 더 많이 회상하며 자신과 관련짓고, 거절 상황에 대한 침착한 인지적 과정 없이 분노, 적대감 등의 과잉반응을 나타냈다(Mor & Inbar, 2009). 또한 타인의 거절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거절인지 판단하기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쉽게 거절을 지각하고 극단적이고 감정적인 방식으로 대처하였다(Kross et al., 2007). 특히 운전 중에는 다른 도로 이용자와의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미루어 볼 때 거절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운전상황에서 다른 도로 이용자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

은 경우에도 자신에 대한 거절을 지각하고, 운전 중에 더 많은 분노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 정서표현양가성의 기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서표현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이란 다른 목표나 사회적 규범으로 인해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억제하려는 욕구 간의 충돌로 경험하게 되는 갈등으로(King & Emmons, 1990), 우울, 낮은 심리적 안정감, 심리적 부적응, 공감이나 사회적 지지의 약화,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나 미성숙한 방어사용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승미, 오경자, 2006; 최해연, 2008; Emmons & Colby, 1995; Katz & Campbell, 1994; King & Emmons, 1990). 이는 정서표현에 갈등을 심하게 느낄수록 문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지나치게 감정적인 방식으로 대처하기 때문이다(김진기 외, 2007). 또한 정서표현양가성은 과민한 생리적 반응성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는데, 실제로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을 상황에서 명백한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냈다(Gross & John, 2003).

정서표현양가성은 특히 분노 등과 같은 부정 정서에서 자주 경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최해연, 2008),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대화나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서표현을 억제하고 문제를 회피하는 식으로 대처한다(권소영 외, 2019; 김민정, 조민아, 2017; 윤혜성, 박지선, 2024). 그러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회피하고 벗어나려 노력할수록 장기적으로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으며(김수철, 2016), 심리적 고통이 더욱 가중되는 경향이 있었다(Shiphred & Salter-Pedneault, 2008). 또한 정서표현에 대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정서를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불안정하고 힘겨운 내적 긴장상태를 유발하기 쉽다(김진이, 김향숙, 2016). 이와 같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신의 분노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더욱 어려우며, 억압된 정서는 조절되지 않은 부적절한 공격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정유지, 2022). 실제로 정서표현양가성은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된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었으며 분노를 지나치게 억제하는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분노가 부적절하게 폭발할 가능성이 높았다(황엘라, 2017). 이는 분노억제 수준이 높아지면 분노표출 수준도 높아짐을 의미한다(김현주, 이정윤, 2011). 또한 부정적인 정서표현의 억압은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폭력에 영향을 미쳤고(Sullivan et al., 2018), 데이트 폭력 가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Landa et al., 2024). 정서표현양가성은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와도 관련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 민감성과 적대감을 더 많이 나타내었고,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남학생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타인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특히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은 표현 자체를 하지 않기보다는 더 억제된 형태로 표현한다(Mongrain & Vettese, 2003). 이는 정서표현양가성이 직접적인 공격성보다는 우회적인 공격성과 더 관련이 높음을 추측할 수 있다(정유지,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익명상황에서 공격적 운전과 관련 있는 성격적 요인으로 거절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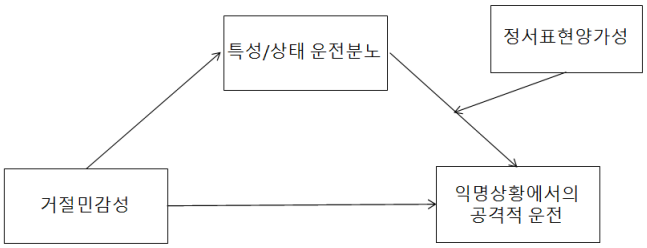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성의 영향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특성 운전분노와 상태 운전분노가 간접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특성 운전분노와 상태 운전분노가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정서표현양가성의 영향력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전자의 거절민감성이 높을수록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이 늘어날 것이다. 둘째, 운전자의 거절민감성이 높을수록 특성 운전분노와 상태 운전분노가 높아질 것이다. 셋째, 특성 운전분노와 상태 운전분노가 높을수록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이 늘어날 것이다. 넷째,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록 운전자의 거절민감성이 특성 운전분노와 상태 운전분노를 통해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고, 특성 운전분노와 상태 운전분노는 각각 따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승자가 없거나 운전자가 차체에 가려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공격적 운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보완하는 제도적, 심리적 개입방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동덕여자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승인번호: DDWU2305-07)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은 국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20-60세 미만의 성인남녀로, 연구 패널을 구축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모집하였다. 사전에 연구 안내문을 통해 연구 목적 및 진행 과정을 설명하였고, 이를 충분히 이해한 후에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에 한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은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제한하였으며, 연구 참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은 제외하였다. 총 30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300명의 자료 모두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 응답을 완료한 대상자에게는 연구 패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적립금을 지급하였다. 해당 적립금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현금으로의 교환이 가능하다. 연구대상 중 남성은 150명(50%), 여성은 150명(50%)이었으며, 연령은 20대부터 50대까지 각각 75명(25%)이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39세(SD = 10.58)였다. 운전경력은 1년 미만부터 20년 이상까지 조사되었다. 운전경력이 20년 이상인 경우가 75명(2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년~10년 미만이 67명(22,3%), 10년~20년 미만이 64명(21.3%), 2년~5년 미만이 58명(19.3%), 1년~2년 미만이 28명(9.3%), 1년 미만이 8명(2.7%)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운전경력은 4.25년(SD = 1.40)이었다.

측정 도구

거절민감성

거절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Levy 등(2001)의 거절민감성 모델에 근거하여 박명진, 양난미(2017)가 타당화한 거절민감성 척도(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6문항으로 예기분노(5문항), 예기불안(4문항), 과잉반응(4문항), 거절지각(3문항) 등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하위요인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거절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3으로 나타났다.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을 측정하기 위해 신다혜(2018)가 사용한 운전분노표현 척도(Driving Anger Expression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언어적 공격표현, 신체적 공격표현, 차량을 이용한 공격표현, 건설적/적응적 운전표현인 4개의 하위요인을 포함한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문항들과 달리 건설적/적응적 운전표현은 공격적 운전과는 반대되는 문항으로, 공격적 운전을 측정하기 위해 분석과정에서 해당 문항을 제외한 선행연구(신다혜, 이인혜, 2021)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건설적/적응적 운전표현 문항은 제외한 나머지 문항의 평균 점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전적으로 그렇다)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적 운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5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이 익명상황을 염두에 두고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운전분노표현 척도 위에 윤보영, 이순철(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운전상황 예시문을 제시하였다. 운전상황 예시문에서는 교통 단속 카메라와 교통경찰의 단속염려가 없고, 혼자 운전하고 있으며 나에게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공격적인 운전행동을 통해 이익(스트레스 해소, 빠른 시간 내에 목적지 도착)을 얻을 수 있는 익명상황을 상상하도록 하였다.

특성 운전분노

특성 운전분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Deffenbacher 등(1994)이 개발한 운전분노 척도를 신용균 외(2009)가 한국의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번안 및 수정한 한국판 운전분노 척도(Korean Driver Anger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8개의 문항으로 진행방해 행동(6문항), 무례한 운전행동(5문항), 적대적 운전행동(4문항), 불법 운전행동(5문항), 서행 운전행동(5문항), 경찰출현 상황(3문항)인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화가 전혀 나지 않는다)에서 5점(화가 아주 많이 난다)까지 Likert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운전자가 운전상황에서 경험하는 분노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문항의 평균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5로 나타났다.

상태 운전분노

상태 운전분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정지은(2021)의 상태 운전분노 시나리오(State Driving Anger Scenario)를 사용하였다. 시나리오를 제시하기 전 실제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다고 상상하며 응답하도록 지시한 후,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를 그림과 함께 제시하였다. 시나리오는 1차선에서 나보다 약간 뒤에서 달리고 있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직진 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나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상황, 우회전 차선에서 주행하고 있던 중에 나의 앞차량이 아무런 신호 없이 편의점 앞에 정차한 상황, 2차선에서 정상 속도로 주행하는 중 나의 뒤차량이 빠른 속도로 다가와 경적을 울리는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시나리오를 읽고 해당 장면을 상상한 뒤 '화가 난다', '신경질이 난다', '약이 오른다', '속상하다', '증오심을 느낀다' 5가지 문항에 응답하게 되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특정 운전상황에서 경험하는 분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0으로 나타났다.

정서표현양가성

정서표현양가성을 측정하기 위해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양가성 척도를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표현양가성 척도(Korea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1문항으로 자기방어적 양가성(13문항)과 관계관여적 양가성(8문항)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가지 하위요인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2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29.0과 SPSS Process Macro(ver 4.1)를 사용하였다. 먼저,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고 t 검정을 이용해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운전자의 거절민감성과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 간의 관계에서 특성 운전분노와 상태 운전분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4번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특성 운전분노 및 상태 운전분노와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1번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운전자의 거절민감성이 특성 운전분노 및 상태 운전분노를 통해 익명상황

에서의 공격적 운전에 미치는 과정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Model 14번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를 확인하고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t 검정 분석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특성 운전분노(t = 2.12, p < .05)와 상태 운전분노(t = 2.16, p < .05),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운전(t = 6.18, p < .001), 그리고 정서표현양가성(t = 2.44, p < .05)에서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후 분석에서는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투입 후 분석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2과 같다. 거절민감성은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r = .29, p < .001), 특성 운전분노(r = .47, p < .001), 상태 운전분노(r =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성별에 따른 차이

	전체	남(n = 150)	여(n = 150)	t
거절민감성	2.89(.74)	2.86(.78)	2.91(.70)	-0.63
특성 운전분노	2.62(.67)	2.71(.70)	2.54(.63)	2.12*
상태 운전분노	3.21(.72)	3.30(.71)	3.12(.73)	2.16*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	2.46(.43)	1.88(.88)	1.39(.43)	6.18***
정서표현양가성	3.08(.63)	3.16(.65)	2.99(.59)	2.44*

*p < .05, ***p < .001

표 2.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1	2	3	4	5
거절민감성	-				
특성 운전분노	.47***	-			
상태 운전분노	.44***	.63***	-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	.29***	.50***	.36***	-	
정서표현양가성	.64***	.36***	.28***	.27***	-

주. 1 = 거절민감성; 2 = 특성 운전분노; 3 = 상태 운전분노; 4 =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 5 = 정서표현양가성. ***p < .001

.44, $p < .001$), 정서표현양가성($r = .64$, $p < .0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은 특성 운전분노($r = .50$, $p < .001$), 상태 운전분노($r = .36$, $p < .001$), 정서표현양가성($r = .27$, $p < .001$)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특성 운전분노는 상태 운전분노($r = .63$, $p < .001$), 정서표현양가성($r = .36$, $p < .001$)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상태 운전분노도 정서표현양가성($r = .28$, $p < .001$)과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거절민감성과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의 관계에서 특성 운전분노 및 상태 운전분노의 매개효과

먼저, 거절민감성과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의 관계에서 특성 운전분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번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거절민감성은 특성 운전분노를 유의하게 예측하였고($B = .43$, $p < .001$), 특성 운전분노도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 = .44$, $p < .001$). 다음으로 특성 운전분노의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거절민감성이 특성 운전분노를 통해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을 예측하는 간접효과는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19$, CI [.13, .26]).

다음으로, 거절민감성과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의 관계에서 상태 운전분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번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거절민감성은 상태 운전분노를 유의하게 예측하였고($B = .43$, $p < .001$), 상태 운전분노도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 = .28$, $p < .001$). 다음으로 상태 운전분노의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거절민감성이 상태 운전분노를 통해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을 예측하는 간접효과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12$, CI [.08, .18]).

특성 운전분노 및 상태 운전분노와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

표 3. 거절민감성과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의 관계에서 특성 운전분노의 매개효과

	B	*SE*	*t*	95% CI	
				LLCI	*ULCI*
거절민감성 → 특성 운전분노	.43	.05	9.30***	1.34	2.00
거절민감성 →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	.15	.05	2.76**	.04	.25
특성 운전분노 →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	.44	.06	7.33***	.32	.55
거절민감성 → 특성 운전분노 →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	Effect	*Boot SE*		.13	.26
	.19	.03			

**$p < .01$, ***$p < .001$

표 4. 거절민감성과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의 관계에서 상태 운전분노의 매개효과

	B	*SE*	*t*	95% CI	
				LLCI	*ULCI*
거절민감성 → 상태 운전분노	.43	.05	8.49***	.33	.53
거절민감성 →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	.21	.05	3.90***	.11	.32
상태 운전분노 →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	.28	.06	4.97***	.17	.39
거절민감성 → 상태 운전분노 →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	Effect		*Boot SE*	.08	.18
	.12		.03		

***$p < .001$

성의 조절효과

먼저, 정서표현양가성이 특성 운전분노와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Process Macro의 Model 1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특성 운전분노와 정서표현양가성의 상호작용항은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 = .16$, $p < .05$). 또한 상호작용항의 추가로 인한 R^2의 증가분 또한 유의하게 나타나($\triangle R^2 = .01$, $p < .05$), 정서표현양가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항이 유의함에 따라 정서표현양가성의 조절효과가 어느 특정영역에서 유의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Johnson-Neyman 방법을 활용하여 유의성 영역을 확인한 결과, 특성 운전분노가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표현양가성 값이 1.68 이상의 구간에서만 유의하였고, 그보다 낮은 영역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정서표현양가성이 1.68 이하일 때는 특성 운전분노가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표현양가성이 유의하게 조절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정서표현양가성이 상태 운전분노와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Process Macro Model 1을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6에 제

표 5. 특성 운전분노와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 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조절효과

	B	*SE*	*t*	95% CI	
				LLCI	*ULCI*
특성 운전분노 (A)	-.03	.23	-.14	-.45	.41
정서표현양가성 (B)	-.31	.18	-1.71	-.68	.05
A × B	.16	.07	2.34*	.03	.30
$R^2 = .35$, $\triangle R^2 = .01^*$, $F = 38.83^{***}$					

*$p < .05$

표 6. 상태 운전분노와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 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조절효과

	B	*SE*	*t*	95% CI	
				LLCI	*ULCI*
상태 운전분노 (A)	-.30	.25	-1.22	-.78	.19
정서표현양가성 (B)	-.48	.25	-1.91	-.98	.02
A × B	.21	.08	2.65**	.05	.36
$R^2 = .29$, $\triangle R^2 = .02^{**}$, $F = 29.19^{***}$					

**$p < .01$

시하였다. 분석 결과, 상태 운전분노와 정서표현양가성의 상호작용항은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 = .21$, $p < .01$). 또한 상호작용항의 추가로 인한 R^2의 증가분 또한 유의하게 나타나($\triangle R^2 = .02$, $p < .05$), 정서표현양가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항이 유의함에 따라 정서표현양가성의 조절효과가 어느 특정영역에서 유의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Johnson-Neyman 방법을 활용하여 유의성 영역을 확인한 결과, 상태 운전분노가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표현양가성 값이 2.38 이상의 구간에서만 유의하였고, 그보다 낮은 영역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정서표현양가성이 2.38 이하일 때는 상태 운전분노가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표현양가성이 유의하게 조절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운전자의 거절민감성, 특성 운전분노 및 상태 운전분노,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먼저, 거절민감성과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 간의 관계에서 특성 운전분노의 매개효과를 정서표현양가성이 조절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14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서표현양가성과 특성 운전분노의 상호작용항이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 = .17$, $p < .05$). 정서표현양가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또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7$, CI [.01, .14]). 특성 운전분노와 정서표현양가성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함에 따라 정서표현양가성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어느 특정 영역에서 유의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Johnson-Neyman 방법을 활용하여 유의성 영역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거절민감성과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의 관계에서 특성 운전분노의 매개효과는 정서표현양가성의 값이 2.03 이상의 구간에서만 유의하였고, 그보다 낮은 영역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정서표현양가성이 2.03 이하일 때는 특성 운전분노의 매개효과를 정서표현양가성이 조절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거절민감성과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 간의 관계에서 상태 운전분노의 매

표 7. 거절민감성, 특성 운전분노,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특성 운전분노(M)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Y)	
	B	*t*	*B*	*t*
예측변인 (X: 거절민감성)	.43	9.30***	.16	2.38*
매개변인 (M: 특성 운전분노)			-.10	-.44
조절변인 (W: 정서표현양가성)			-.43	-2.28*
상호작용항 (M × W: 특성 운전분노 × 정서표현양가성)			.17	2.45*
	R^2 = .24		R^2 = .36	
	F = 46.12***		F = 6.00*	
조절된 매개지수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SE*	*LLCI*	*ULCI*
.07		.03	.01	.14

*p < .05,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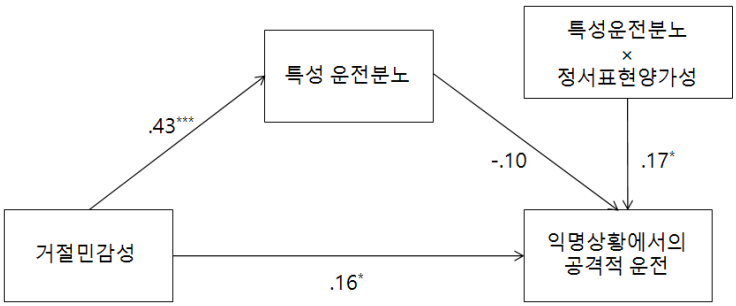

그림 2. 거절민감성, 특성 운전분노,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개효과를 정서표현양가성이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Proccess Macro의 Model 14를 활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서표현양가성과 상태 운전분노의 상호작용항이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 = .22, p < .01). 정서표

표 8. 거절민감성, 특성 운전분노와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에 따른 조절효과 유의성에 대한 Johnson-Neyman 검증 결과

정서표현 양가성	Effect	*SE*	*t*	*p*	*LLCI*	*ULCI*
1.33	.13	.14	.89	.38	-.15	.40
1.51	.15	.13	1.19	.24	-.10	.41
1.68	.18	.12	1.54	.13	-.05	.42
1.86	.21	.11	1.95	.05	-.00	.43
1.86	.21	.11	1.97	.05	.00	.43
2.03	.24	.10	2.44	.02	.05	.44
2.20	.27	.09	3.02	.00	.09	.45
2.38	.30	.08	3.70	.00	.14	.46
2.55	.33	.07	4.48	.00	.19	.47
2.73	.36	.07	5.34	.00	.23	.49
2.90	.39	.06	6.22	.00	.27	.51
3.07	.42	.06	6.99	.00	.30	.53
3.25	.45	.06	7.52	.00	.33	.56
3.42	.48	.06	7.76	.00	.35	.59
3.59	.50	.07	7.71	.00	.38	.63
3.77	.53	.07	7.48	.00	.39	.67
3.94	.56	.08	7.16	.00	.41	.72
4.12	.59	.09	6.81	.00	.42	.76
4.29	.62	.10	6.47	.00	.43	.81
4.46	.65	.11	6.15	.00	.44	.86
4.64	.68	.12	5.87	.00	.45	.91
4.81	.71	.13	5.62	.00	.46	.95

현양가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지수 또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 = .09, CI [.03, .16]). 상태 운전분노와 정서표현양가성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함에 따라 정서표현양가성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어느 특정 영역에서 유의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Johnson-Neyman 방법을 활용하여 유의성 영역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거절민감성과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의 관계에서 상태 운전분노의 매개효과는 정서표현양가성의 값이 2.55 이상의 구간에서만 유의하였고,

표 9. 거절민감성, 상태 운전분노,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상태 운전분노(*M*)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Y*)	
	B	*t*	*B*	*t*
예측변인 (X: 거절민감성)	.43	8.49***	.20	2.91**
매개변인 (M: 상태 운전분노)			-.38	-1.57
조절변인 (W: 정서표현양가성)			-.64	-2.52*
상호작용항 (M × W: 상태 운전분노 × 정서표현양가성)			.22	2.79**
	R^2 = .21		R^2 = .02	
	F = 38.93***		F = 7.78**	
조절된 매개지수 (index of moderated mediation)		*SE*	*LLCI*	*ULCI*
.09		.04	.03	.16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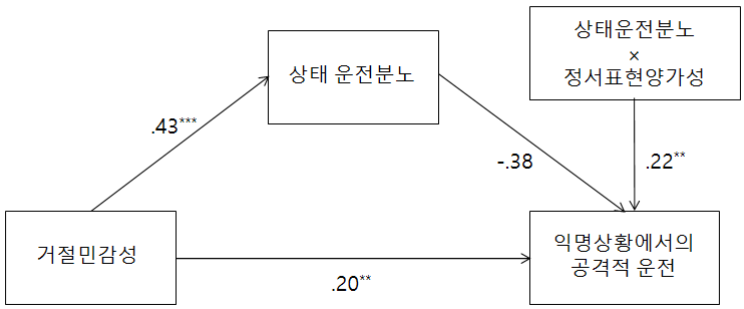

그림 3. 거절민감성, 상태 운전분노,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표 10. 거절민감성, 상태 운전분노와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에 따른 조절효과 유의성에 대한 Johnson-Neyman 검증 결과

정서표현양가성	Effect	*SE*	*t*	*p*	*LLCI*	*ULCI*
1.33	-.10	.15	-.66	.51	-.38	.19
1.51	-.06	.13	-.45	.66	-.32	.20
1.68	-.02	.12	-.18	.86	-.26	.22
1.86	.02	.11	.14	.89	-.20	.23
2.03	.05	.10	.54	.59	-.14	.25
2.20	.09	.09	1.03	.31	-.08	.26
2.38	.13	.08	1.64	.10	-.03	.28
2.46	.15	.08	1.97	.05	.00	.29
2.55	.17	.07	2.39	.02	.03	.30
2.73	.20	.06	3.26	.00	.08	.33
2.90	.24	.06	4.18	.00	.13	.35
3.07	.28	.06	4.99	.00	.17	.39
3.25	.32	.06	5.52	.00	.20	.43
3.42	.35	.06	5.74	.00	.23	.47
3.59	.39	.07	5.72	.00	.26	.52
3.77	.43	.08	5.57	.00	.28	.58
3.94	.47	.09	5.37	.00	.30	.64
4.12	.50	.10	5.17	.00	.31	.69
4.29	.54	.11	4.98	.00	.33	.75
4.46	.58	.12	4.80	.00	.34	.81
4.64	.61	.13	4.65	.00	.35	.87
4.81	.65	.15	4.51	.00	.37	.94

그보다 낮은 영역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정서표현양가성이 2.55 이하일 때는 상태 운전분노의 매개효과를 정서표현양가성이 조절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의 거절민감성이 특성 운전분노와 상태 운전분노를 통해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서표현양가성의 조절된 매

개효과를 검증하여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운전상황에서 운전 중 경험한 분노를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유용한 개입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 운전분노와 상태 운전분노 모두 운전자의 거절민감성과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 간 관계를 정적으로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절민감성이 높을수록 상대 운전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특성 운전분노와 상태 운전분노를 경험하고, 익명적인 운전 상황에서 자신의 분노를 공격적인 운전을 통해 표출하는 경향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사회적 배척을 경험한 참가자들이 운전분노를 느끼고 위험한 운전 행동을 하였다는 결과(Svetieva et al., 2016)와 유사한 맥락이다. 본 연구에서 운전분노의 매개효과는 운전분노의 세부유형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즉, 운전자의 거절민감성은 특성 운전분노와 상태 운전분노에 동일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성 운전분노와 상태 운전분노는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의 발현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특성 운전분노가 높은 운전자가 상태 운전분노 또한 높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김요한, 이재식, 2014). 본 연구에서도 특성 운전분노와 상태 운전분노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특성 운전분노와 상태 운전분노가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에 미치는 차별적인 요소가 희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특성 운전분노 및 상태 운전분노와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 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서표현양가성은 특성 운전분노 및 상태 운전분노와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특성 운전분노와 상태 운전분노가 높은 운전자의 경우 정서표현양가성 수준에 따라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특성 운전분노와 상태 운전분노가 높은 운전자가 평소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정서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여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할 때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평소 정서표현양가성을 많이 느끼는 운전자일수록 익명성이 보장된 운전상황에서 분노의 탈억제 경향이 커졌다는 연구(Parkinson, 200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셋째, 운전자의 거절민감성이 특성 운전분노와 상태 운전분노를 통해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수록 운전자의 거절민감성이 특성 운전분노와 상태 운전분노를 통해 익명상황에서의 공격적 운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 경우, 운전자가 상대 운전자로부터 거절당했다고 지각했을 때 더 높은 수준의 분노를 경험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운전상황에서 자신의 분노를 공격적인 운전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정서표현양가성이 낮을 경우에는 운전 중 상대 운전자로부터 거절이나 무시를 지각할 때 분노를 경험하더라도 자신의 분노를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하고 해소하고자 하는 경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절민감성이 높은 운전자의 상대 운전자의

행동을 자신을 향한 의도적인 거절로 확신하고(박정현, 이종선, 2018) 상대 운전자를 향한 분노를 경험하는데(Mor & Inbar, 2009), 운전 중 분노를 경험하는 것은 신중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자제력을 고갈시킴으로써(Muraven et al., 1998) 자신의 분노를 공격적인 운전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평소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을 경우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와 표현하는 정서 간의 차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한다(Mongrain & Vettese, 2003). 이처럼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분노를 경험하기 더 쉽고(Keinan et al., 1992), 운전하는 데 필요한 인지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Fothergill & Neal, 2008) 운전자는 충동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특히 운전 중에는 다른 운전자와의 만남이 일회적이고, 차체에 가려 운전자들이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환경적 특성은 운전자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분노를 공격적인 방식으로 표출하기 쉽게 만든다(Eillson et al., 2001). 또한 운전 중에는 분노를 유발한 대상과의 대면 상호작용이 어려우며, 운전자가 느낀 분노를 상대 운전자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운전자가 실제로 경험한 분노 수준은 상대 운전자를 상해에 이르게 할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노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격적 운전 같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Parkinson, 2001).

거절민감성은 비교적 어린 시절에 주양육자의 거부적이고 비일관된 양육에 기인하는 기질적인 특성으로 변화하기 어렵다(이건희, 이민규, 2023). 따라서 거절민감성이 높은 운전자의 공격적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 상황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분노와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 및 정서표현 방식에 개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서를 표현하는 데 많은 갈등을 경험할수록 억압 등과 같은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김혜원 외, 2020), 이는 타인을 향한 공격적인 행동을 야기한다(김현아, 김정규, 2016). 또한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사람들은 과거 자신의 정서를 표현한 이후 겪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학습함으로써 정서표현에 대해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정서 경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김창대, 2019). 이는 내담자가 정서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내담자는 자신의 정서경험을 그대로 맞닥뜨리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고통스러운 정서가 지속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때 상담자는 고통스러움을 담아내주는 작업을 통해 내담자가 고통스러움을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정서를 수용하고, 내담자가 자신의 핵심 정서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버텨 주는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Greenberg & Paivio, 1997). 한편 정서를 수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담자는 상담자와의 안전한 관계 속에서 정서의 주체가 자신임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김영근, 김창대, 2015).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를 향해 진심어린 관심과 이해를 전달함으로써 내담자가 수용 받는 경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김미애, 이지연, 2013). 이처럼 정서표현양가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부정 정서라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도록 돕는 치료적 개입은 분노가 공격적인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 또한

본 연구 결과와 연관지어 생각해볼 때 운전 상황에서 분노를 조절하는 것과 공격적 운전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공격적 운전을 운전자의 성격적 특성인 거절민감성과 관련하여 알아보았다. 교통 범죄로 여겨지는 공격적 운전은 주변에서 흔히 관찰되며, 차량을 통한 운전자의 분노 표출과 공격적 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국내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외에서는 실제 타인으로부터의 거절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공격적 운전에 대한 사회적 배척 경험의 영향을 밝힌 연구가 있었으나(Svetieva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거절민감성이 높을 경우 중립적인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행동을 거절로 지각하며 실제 타인으로부터의 거절을 경험했을 때와 유사하게 타인에 대해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특히 운전상황에서는 제한된 의사소통 방식으로 상대 운전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절민감성이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둘째, 선행연구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과 관계적 공격성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윤혜성, 박지선, 2024; 정유지, 2022). 이는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했을 때 자신의 분노를 부적절하게 억제하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김민정, 조민아, 2017), 수동적인 방식의 공격성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소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자신의 행동과 행동의 결과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쉬운 익명적인 환경에서는 타인을 향해 직접적인 공격성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정서표현양가성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확장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정서표현양가성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하여 개인에게 정서표현을 자제시키고 개인보다는 집단으로서의 내가 되기를 요구한다(조긍호, 2003). 하지만 정서표현의 부적절한 억압은 불안한 정서 상태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서 상태는 부정적 정서표현으로 이어져 공격성의 다양한 형태를 유발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사회적 바람직성에 근거하여 자신의 운전 분노나 공격적 운전을 축소하여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운전 상황에서의 운전자의 무의식적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운전 시뮬레이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 참여자들은 운전 중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과 익명상황을 가정하는 제시문을 읽고 문항에 대답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가 실제 운전 상황에서도 유사하게 도출될 수 있는지 반복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운전분노, 운전태도, 그리고 운전행동은 성별, 연령, 운전경력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영향을 많이 받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Lajunen & Parker, 2001; Lonczak et al., 2007).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별만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주요 변인들의 관계를 분석하

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들의 관계가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특성 운전분노와 상태 운전분노가 공격적 운전에 미치는 차별적인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Hole, 2014)에 따라 운전분노를 특성 운전분노와 상태 운전분노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나 운전분노의 세부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특성 운전분노와 상태 운전분노의 간접효과를 조절할 것으로 예측되는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운전분노의 세부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영향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상태 운전분노를 측정하기 위해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이때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순서나 시나리오가 포함된 상태 운전분노 설문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있어 인지부하가 설문 응답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시나리오의 순서효과를 통제하고 인지부하가 설문 응답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통제하는 절차가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고은영, 김미경 (2020). 거부민감성과 이성관계 만족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과 갈등해결전략의 이중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7(2), 181-198. https://doi.org/10.16983/kjsp.2020.17.2.181

권소영, 곽자랑, 김비아, 이동훈 (2019). 한국 대학생의 자기관과 감정표현불능증의 관계: 상호독립적 자기관 결핍에 따른 정서표현양가성 및 정서억제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5(2), 101-118. https://dx.doi.org/10.20406/kjcs.2019.5.25.2.101

김미애, 이지연 (2013). 상담과정에서 정서전염에 대한 이해와 임상적 활용. 상담학연구, 14(2), 1067-1092.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122683

김민정, 조민아 (2017). 대학생의 성인 애착과 연인관계에서 부정적 갈등해결전략 간의 관계: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8(2), 181-202. https://www.riss.kr/link?id=A104856537

김수철 (2016).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https://www.dbpia.co.kr/journal/detail?nodeId=T14223941

김영근, 김창대 (2015). 상담과정에서 정서의 활성화 및 반복적 수용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고찰. 상담학연구, 16(6), 1-23.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123107

김요한, 이재식 (2014). 운전자의 상태운전분노가 추돌회피와 상황인식에 미치는 효과: 부정정서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0(4), 391-414.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32527

김은지, 이은샘, 현명호 (2018). 거절민감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반추와 사회적 회피의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

강, 23(1), 187-207.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095981

김진기, 이지연, 김진숙 (2007). 대상관계수준이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과 부정적 기분 조절 기대치를 매개로. 상담학연구, 8(4), 1243-1261.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121935

김진이, 김향숙 (2016). 대학생의 배척민감성과 분노억압/분노조절의 관계: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이해, 37(1), 87-103.
https://www.riss.kr/link?id=A101963770

김창대 (2019). 신경과학적 관점의 정서조절 연구 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에 제공하는 시사점. 상담학연구, 20(3), 1-51.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095981

김현아, 김정규 (2016).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에 대해여: 평가염려완벽주의와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6(12), 319-333.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385807

김현주, 이정윤 (2011). 청소년의 애착과 분노표현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3), 965-981.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122381

김혜경 (2021). 청소년의 거부민감성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2(4), 77-103.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130772

김혜원, 박영광, 김영근 (2020).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양가성 및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21(3), 779-806.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443570

도로교통공단 (2023). 2023년 도로교통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https://www.koroad.or.kr/main/research/res_estimate_list.do

박남숙, 강혜자 (2009). 위험한 운전상황에서 운전자의 정서, 인지 및 행동 반응.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2), 403-418.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096453

박명진, 양난미 (2017). 대학생 거부민감성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103-127.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095055

박정현, 이종선. (2018). 거부민감성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해석편향과 부정적 기억편향의 이중매개 효과 검증.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1), 66-79.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092253

선미진, 서수균 (2021). 대학생의 이성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관계중독의 관계: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9(1), 1-20.
https://www.dbpia.co.kr/journal/detail?nodeId=T

15367745

신다혜, 이인혜 (2021). 자기애와 공격적 운전 간의 관계: 분노반추의 매개효과와 공감의 조절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3), 257-282.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328421

신용균, 한덕웅, 류준범 (2009). 운전분노척도에 의한 과속운전행동의 예측.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1), 159-173.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096467

유예림, 강혜자 (2021). 거부민감성, 적대적 귀인 편향 및 전위된 공격성 간의 관계: 의도적 통제의 조절효과. 사회과학연구, 60(2), 383-40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55114

유진아, 김종남 (2022).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질투와 적대적 귀인편향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9(11), 293-321. http://dx.doi.org/10.21509/KJYS.2022.11.29.11.293

윤보영, 이순철, (2011). 익명상황의 운전행동과 운전분노 및 정서표현갈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7(3), 321-341.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2939677

윤혜성, 박지선 (2024). 정서표현 양가성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9(2), 131-146.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973078

이가연, 이정윤 (2022). 불안정 성인애착이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의 순차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4(1), 87-109. https://doi.org/10.23844/kjcp.2022.02.34.1.87

이건희, 이민규 (2023).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반응적 공격성 간의 관계: 자기개념 명확성과 적대적 귀인편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9(4), 477-496.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775076

이승미, 오경자 (2006). 정서인식불능,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 정서표현성이 중년기혼 여성의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1), 113-12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088463

신다혜 (2018). 자기애와 공격적 운전의 관계에서 분노반추의 매개효과와 공감의 조절효과: 자기주도 대 타인의존 자기애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https://www.dbpia.co.kr/journal/detail?nodeId=T14904122

이재식 (2013). 위험 운전상황에서 운전자의 문화성향에 따른 귀인양식의 차이: 운전 시뮬레이션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3), 367-38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01209

이희경, 김경희, 이홍권 (2014). 거부민감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긍정정서를 통한 파국적 사고의 매개된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97-121.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095195

정소현, 양난미 (2018).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자기침묵과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9(5), 137-159.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01294

정유지 (2022). 내면화된 수치심이 연인관계 내에서의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과 관계 불안정성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3(4), 993-100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867685

정은정, 정남운 (2019). 관계중독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4), 947-968.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095897

정지은 (2021). 자기주도 대 타인의존 자기애와 운전분노 간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https://www.dbpia.co.kr/journal/detail?nodeId=T15899587

조긍호 (2003). 문화성향과 통제 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17(2), 85-106. https://accesson.kr/ksppa/v.17/2/85/14513

최명화, 주영아 (2018). 청소년의 거부민감성이 관계적 공격성에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4), 1009-1027.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10026971507

최수영 (2020).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책임귀인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http://chosun.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333893

최수형, 김경찬, 강지현 (2020). 난폭, 보복운전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0546967

최해연 (2008). 한국인에게는 억압이 적응적인가?: 억압 측정의 타당성 논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1), 197-216.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253325

최해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71-89.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094666

탁언효, 윤영식, 김민정, 이아라 (2022).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적대적 귀인편향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마음챙김의 매개된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29(2), 257-286. https://www.riss.kr/link?id=A108036254

하수홍, 장문선 (2013). 정서적 학대 경험과 경

계선 성격특성 간의 관련성에서 거절민감성,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4), 833-852. https://accesson.kr/kcpa/v.25/4/833/20760

황엘라. (2017). 거부민감성과 전위공격성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https://www.riss.kr/link?id=T14540123

Ayduk, Ö., Gyurak, A., & Luerssen, A. (2008).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rejection-aggression link in the hot sauce paradigm: The case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3), 775-782. https://doi.org/10.1016/j.jesp.2007.07.004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https://doi.org/10.1037/0033-2909.117.3.497.

Berenson, K. R., Gyurak, A., Ayduk, Ö., Downey, G., Garner, M. J., Mogg, K., Bradley, B. P., & Pine, D. S. (2009). Rejection sensitivity and disruption of attention by social threat cu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6), 1064-1072. https://doi.org/10.1016/j.jrp.2009.07.007

Björklund, G. M. (2008). Driver irritation and aggressive behaviour.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40*(3), 1069-1077. https://doi.org/10.1016/j.aap.2007.10.014

Blanchard, E. B., Barton, K. A., & Malta, L. (2000). Psychometric properties of a measure of aggressive driving: The Larson Driver's Stress Profile. *Psychological reports, 87*(3), 881-892. https://doi.org/10.2466/pr0.2000.87.3.881

Britt, T. W., & Garrity, M. J. (2006). Attributions and personality as predictors of the road rage response.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5*(1), 127-147. https://doi.org/10.1348/014466605X41355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459. https://doi.org/10.1037/0022-3514.63.3.452

Christopherson, K. M. (2007). The positive and negative implications of anonymity in Internet social interactions: "On the Internet, nobody knows you're a do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3*(6), 3038-3056. https://doi.org/10.1016/j.chb.2006.09.001

Craig, A., Tran, Y., Guest, R., Gopinath, B., Jagnoor, J., Bryant, R, A., Collie, A., Tate, R., Kenardy, J., Middletion, J., & Cameron, I. (2016). Psychological impact of injuries sustained in motor vehicle crashes: Systematic review and meta analysis. *BMJ Open, 6*(9), Article e011993. https://doi.org/10.1136/bmjopen-2016-011993

Deffenbacher, J. L., Huff, M. E., Lynch, R. S., Oetting, E. R., & Salvatore, N. F. (2000). Characteristics and treatment of high-anger drive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5-17. https://doi.org/10.1037/0022-0167.47.1.5

Deffenbacher, J. L., Lynch, R. S., Oetting, E. R., & Swaim, R. C. (2002). The Driving Anger Expression Inventory: A measure of how people express their anger on the road.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6), 717-737. https://doi.org/10.1016/S0005-7967(01)00063-8

Deffenbacher, J. L., Oetting, E. R., & Lynch, R.

S. (1994). Development of a Driving Anger Scale. *Psychological Reports, 74*(1), 83-91. https://doi.org/10.2466/pr0.1994.74.1.83

Denson, T. F., Pedersen, W. C., Friese, M., Hahm, A., & Roberts, L. (2011). Understanding impulsive aggression: Angry rumination and reduced self-control capacity are mechanisms underlying the provocation-aggression relationship.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7*(6), 850-862. https://doi.org/10.1177/0146167211401420

Diener, E. (1976). Effects of prior destructive behavior, anonymity, and group presence on deindividuat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5), 497-507. https://doi.org/10.1037/0022-3514.33.5.497

Diener, E., Fraser, S. C., Beaman, A. L., & Kelem, R. T. (1976). Effects of deindividuation variables on stealing among Halloween trick-or-treat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2), 178-183. https://doi.org/10.1037/0022-3514.33.2.178

Downey, G., Feldman, S., & Ayduk, O.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e viol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7*(1), 45-61. https://doi.org/10.1111/j.1475-6811.2000.tb00003.x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https://psycnet.apa.org/doi/10.1037/0022-3514.70.6.1327

Downey, G., Freitas, A. L., Michaelis, B., & Khouri, H. (1998). The self-fulfilling prophecy in close relationships: Rejection sensitivity and rejection by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545-560. https://psycnet.apa.org/buy/1998-10511-019

Dula, C. S., & Ballard, M. E. (2003).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measure of dangerous, aggressive, negative emotional, and risky driving.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3*(2), 263-282. https://doi.org/10.1111/j.1559-1816.2003.tb01896.x

Edward, B. D., Warren, C. R., Tubré, T. C., Zyphur, M. J., & Hoffner-Prillaman, R. (2013). The validity of narcissism and driving anger in predicting aggressive driving in a sample of young drivers. *Human Performance, 26*(3), 191-210. https://doi.org/10.1080/08959285.2013.795961

Eillson, P. A., Bell, P., & Deffenbacher, J. L. (2001). The effect of trait driving anger, anonymity, and aggressive stimuli on aggressive driving behavior. *Journal of Aaplied Social Psychology, 31*(2), 431-443. https://doi.org/10.1111/j.1559-1816.2001.tb00204.x

Eillson, P. A., Govern, J. M., Petri, H. L., & Figler, M, H. (1995). Anonimity and aggressive driving behavior: A field study.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0*(1), 265-272. https://www.proquest.com/scholarly-journals/anonymity-aggressive-driving-behavior-field-study/docview/1292305808/se-2

Eisenberger, N. I., Lieberman, M. D., & Williams,

K. D. (2003). Does rejection hurt? An fMRI study of social exclusion. *Science, 302*(5643), 290-292. https://www.science.org/doi/abs/10.1126/science.1089134

Emmons, R. A., & Colby, P. M.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5), 947-959. https://doi.org/10.1037/0022-3514.68.5.947

Fothergill, S., & Neal, A. (2008). The effect of workload on conflict decision making strategies in air traffic control.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Society Annual Meeting. 52, 39-43. https://doi.org/10.1177/154193120805200110

Galovski, T. E., Malta, L. S., & Blanchard, E. B. (2006). *Road rage: Assessment and treatment of the angry, aggressive driver.*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1297-000*

Ge, Y., Liu, X., Shen, B., & Qu, W. (2021). Can prosocial attitude reduce the risk behavior in simulated driving?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F: Traffic Psychology and Behaviour, 79*, 84-93. https://doi.org/10.1016/j.trf.2021.04.003

Greenberg, L. S., & Paivio, S. C. (1997). *Working with emotions in psychotherapy* (vol. 13). Guilford Press. https://books.google.co.kr/books?hl=ko&lr=&id=P72JYH2fPX4C&oi=fnd&pg=PA1&dq=Working+with++emotions+in+psychotherapy.+&ots=qouWrSfSrz&sig=dqZUdEtV25eQi7JV0_GjoRqt3ek#v=onepage&q=Working%20with%20emotions%20in%20psychotherapy.&f=false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 https://psycnet.apa.org/record/2003-05897-016

Hole, G. J. (2014). *The psychology of driving*. Psychology Press. *https://doi.org/10.4324/9781315805627*

Jefferies, L. N., Smilek, D., Eich, E., & Enns, J. T. (2008). Emotional valence and arousal interact in attentional control. *Psychological Science, 19*(3), 290-295. https://doi.org/10.1111/j.1467-9280.2008.02082.x

Katz, I. M., & Campbell, J. D. (1994).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and well-being: Nomothetic and idiographic tests of the stress-buffering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3)*, 513-524. https://doi.org/10.1037/0022-3514.67.3.513

Kawamoto, T., Onoda, K., Nakashima, K. I., Nittono, H., Yamaguchi, S., & Ura, M. (2012). Is dorsal anterior cingulate cortex activation in response to social exclusion due to expectancy violation? An fMRI study. *Frontiers in evolutionary neuroscience, 4*, Article e11. https://doi.org/10.3389/fnevo.2012.00011

Keinan,G., Ben-Zur, H., Zilka, M., & Carel, R. S. (1992). Anger in or out, which is healthier? An attempt to reconcile inconsistent findings. *Psychology and Health, 7*(2), 83-98. https://doi.org/10.1080/08870449208520012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https://psycnet.apa.org/record/1990-25289-001

King, Y., & Parker, D. (2008). Driving violations, aggression and perceived consensus. *European Review of Applied Psychology, 58*(1), 43-49. https://doi.org/10.1016/j.erap.2006.05.001

Kross, E., Egner, T., Ochsner, K., Hirsch, J., & Downey, G. (2007). Neural dynamics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19*(6), 945-956. https://doi.org/10.1162/jocn.2007.19.6.945

Lajunen, T., & Parker, D. (2001). Are aggressive people aggressive drivers?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ported general aggressiveness, driver anger and aggressive driving.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33*(2), 243-255. https://doi.org/10.1016/S0001-4575(00)00039-7

Landa, S. U., González, S. N., Martínez, A. P., Leiva, M. G., & Castro, J. L. G. (2024). The boomerang effect of suppression of emotional expression: Relatinship power, affectivity and adolescent and youth male-to-female dating viol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ence, 53*(1), 36-52.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0964-023-01854-y

Leahy, R. L. (2002). A model of emotional schemas.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9*(3), 177-190. https://doi.org/10.1016/S1077-7229(02)80048-7

Levy, S.R., Ayduk, O., & Downey, G. (2001).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 In M.R. Leary (Ed.), *Interpersonal rejection.* (pp. 251-289). Oxford University Press. https://psycnet.apa.org/record/2001-06667-010

Lin, W., Gong, L., Xia, M., & Dai, W. (2018). Prevalence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road traffic accident survivors: A PRISMA-compliant meta-analysis. *Medicine, 97*(3), Article e9693. https://journals.lww.com/mdjournal/fulltext/2018/01190/prevalence_of_posttraumatic_stress_disorder_among.57.aspx

Lonczak, H. S., Neighbors, C., & Donovan, D. M. (2007). Predicting risky and angry driving as a function of gender.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 39*(3), 536-545. https://doi.org/10.1016/j.aap.2006.09.010

London, B., Downey, G., Bonica, C., & Paltin, I. (2007). Soci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jection sensitivitiy. *Jou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7*(3), 481-506. https://doi.org/10.1111/j.1532-7795.2007.00531.x

Loudin, J. L., Loukas, A., & Robinson, S. (2003). Relational aggression in college students: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empathy. *Aggressive Behavior 29*(5), 430-439. https://doi.org/10.1002/ab.10039

Lowenstein, L. F. (1997). Research into causes and manifestations of aggression in car driving. *The Police Journal, 70*(3), 263-270. https://doi.org/10.1177/0032258X9707000309

Mongrain, M., & Vettese, L. C. (2003).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4), 545-555.

https://doi.org/10.1177/0146167202250924

Mor, N., & Inbar, M. (2009). Rejection sensitivity and schema-congruent information processing biase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3*(3), 392-398. https://doi.org/10.1016/j.jrp.2009.01.001

Muraven, M., Tice, D. M., & Baumeister, R. F. (1998). Self-control as a limited rexource: Regulatory depletion patter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774-789. https://doi.org/10.1037/0022-3514.74.3.774

Neighbors, C., Vietor, N. A., & Knee, C. R. (2002). A motivational model of driving anger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3), 324-335. https://doi.org/10.1177/0146167202286004

Nesbit, S. M., Conger, J. C., & Conger, A. J. (2007). A quantitative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and aggressive driving.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2*(2), 156-176. https://doi.org/10.1016/j.avb.2006.09.003

Parkinson, B. (2001). Anger on and off the road.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2*(3), 507-526. https://doi.org/10.1348/000712601162310

Romero-Canyas, R., Downey, G., Berenson, K., Ayduk, O., & Kang, N. J. (2010).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rejection‐hostility link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78*(1), 119-148. https://doi.org/10.1111/j.1467-6494.2009.00611.x

Shiphred, J. C., & Salter-Pedneault. K. (2008). Attention, memory, intrusive thoughts, and acceptance in PTSD: An update on the empirical literature for clinicians. *Cognitive and Behavioral Practice, 15*(4), 349-363. https://doi.org/10.1016/j.cbpra.2008.01.003

Silke, A. (2003). Deindividuation, anonymity, and violence: Findings from Northern Ireland.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3*(4), 493-499. https://doi.org/10.1080/00224540309598458

Sullivan, T. J., Leifker, F. R., & Marshall, A. D. (2018). Observed emotional expressivity,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among community couple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1*(3), 352-361. https://doi.org/10.1002/jts.22296

Svetieva, E., Zadro, L., Denson, T. F., Dale, E., O'Moore, K., & Zheng, W. Y. (2016). Anger mediates the effect of ostracism on risk-taking. *Journal of Risk Research, 19*(5), 614-631. https://doi.org/10.1080/13669877.2014.1003320

Teasdale, J. D., Moore, R. G., Hayhurst, H., Pope, M., Williams, S., & Segal, S. V. (2002). Metacognitive awareness and prevention of relapse in depression: Empirical evidence. *Journal of Couns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2), 275-287. 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HazelHayhurst/publication/11415197_Metacognitive_Awareness_and_Prevention_of_Relapse_in_Depression_Empirical_Evidence/links/542fb20e0cf277d58e91fe83/Metacognitive-Awareness-and-Prevention-of-Relapse-in-Depression-Empir

Twenge, J. M., Baumeister, R. F., Tice, D. M., & Stucke, T. S. (2001). If you can't join them, beat them: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6), 1058-1069.

https://doi.org/10.1037/0022-3514.81.6.1058

Weiner, B. (2006). *Social motivation, justice, and the moral emotions: An attributional approach*. Psychology Press. *https://doi.org/10.4324/9781410615749*

Wells-Parker, E., Ceminsky, J., Hallberg, V., Snow, R. W., Dunaway, G., Guiling, S., Williams, M., & Anderson, B. (2002). An exploratory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oad rage and crash experience in a representative sample of US drivers.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34*(3), 271-278. https://doi.org/10.1016/S0001-4575(01)00021-5

원고접수일 : 2024. 10. 24.
수정원고접수일 : 2025. 02. 09.
게재확정일 : 2025. 02. 11.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Clinical Psychology in Korea: Research and Practice
2025, Vol. 11, No. 1, 127-156

The Effect of Driver's Rejection Sensitivity on Aggressive Driving in Anonymous Situations: Moderated Mediation of Driving Anger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Yu Jung Song[1)] **Joo Young Lee**[2)†]

[1)]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Education, and Psychology, Dongduk Women's University, M.A

[2)]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through trait-driving and state-driving ang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rivers' rejection sensitivity and aggressive driving in anonymous situations. Data were collected from 300 adult men and women aged between 20 and 60 through an online survey.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both trait-driving and state-driving anger showed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rivers' rejection sensitivity and aggressive driving in anonymous situations. Seco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rait-driving anger, state-driving anger, and aggressive driving in anonymous situations. Third, the pathway through which drivers' rejection sensitivity affects aggressive driving in anonymous situations via trait driving anger and state driving anger was moderated by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discusses it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Key words : *aggressive driving in anonymous situations, rejection sensitivity, trait driving anger, state driving anger,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

* This paper is based on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complet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corresponding author. This study was presented as a poster at the 2023 Fall Conference hosted by the Korean Society of Clinical Psychology.

† Corresponding Author : Joo Young Lee /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Dongduk Women's University / (02748) 60, Hwarang-ro 13-gil, Seongbuk-gu, Seoul, Republic of Korea / E-mail: jylee7694@dongduk.ac.kr